

흠과 공감의 도덕성

맹 주 만*

주제분류 윤리학, 도덕 심리학

주요어 공감, 인간애, 자비심, 도덕감, 인상, 관념, 감정, 정념, 반성, 이성, 상상력

요약문

이 글은 흠의 도덕적 감정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려 한다. 흠의 윤리적 탐구의 주요 목적은 윤리적 자연주의자로서 어떤 도덕 판단을 참 혹은 거짓이 되게 하는 조건들, 즉 도덕 판단의 근거들 혹은 기원을 규범적 관점이 아니라 발생적 관점에서 발견하고 정당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흠은 동시에 도덕 판단이란 기본적으로 보편적 관점을 허용하는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도덕성의 원리를 발견하려는 시도의 성공은 보편적 관점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작업을 필요로 한다. 흠은 이 과제를 『인성론』에서는 공감의 원리를 통해서 수행했지만, 필자는 공감의 도덕성이 갖는 한계를 해소하지 못했다고 해석한다. 또한 그 대안적 내지는 보충적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후기 저술들 중의 하나인 『도덕원리연구』에서 시도한 인간애의 원리라고 해석한다. 보편적 감정의 존재를 가감 없이 승인하는 이 저서에서 흠은 ‘원인에 대한 우리의 검토는 어디에선가 멈추어야 한다. 모든 과학에는 그것을 넘어서는 보다 일반적인 원리를 발견하기를 바랄 수 없는 그런 원리들이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다. 필자는 이런 흠의 고백이 ‘인상과 관념의 대응 문제’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한다. 만일 어떤 연구가 이 지점에 대한 탐구를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그 이상의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면, 그러한 상태에서 내리게 되는 결론은 말 그대로 잠정적 주장이 될 공산이 크다. 인식론, 정념론, 도덕론 등 흠의 철학 모든 부문에서 사정은 같다. 흠의 철학이 난해하게 읽히는 원인들도 이와 관련이 깊다. 그런데 만일 그 점에 대한 해명이 불충

* 중앙대학교

분하다면 그에 따른 결론 역시 그러할 것이다. 이 글은 이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흠의 이른바 ‘관념과 인상의 대응 문제’ 중에서 우리의 마음이 지각하는 근원 인상으로서 공감과 인간애 개념에 주목한다. 특히 흠에게 공감은 인상과 관념에 대한 경험적 해석학에서 초래되는 엉클어진 실타래를 풀어주며, 중국에는 쾌락 및 고통과 함께 도덕의 일반적 토대와 원리들의 존재를 증명해주는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마음의 원리들 중의 하나다. 그러나 반면에 그만큼 여전히 더 해명되고 논구되어야 할 문제로 남아 있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도덕 판단을 보편적 관점의 표명으로 간주하는 흠이 그 가능성을 규명하기 위해서 보여주고 있는 시도는 공감이나 인간애 어느 쪽으로도 성공을 거둘 수 없으며, 이 양자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제3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인상과 관념의 대응 문제’

흠의 윤리이론을 특징짓는 이름은 다양하다. 이론과 방법상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자연주의, 감정주의(emotionism), 정의주의(emotivism), 공리주의, 이타주의, 규약주의, 경험주의, 귀납주의, (비)인지주의 등과 같은 명칭들이 그의 철학을 특징짓는데 사용된다.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규정하더라도, 또한 이 때문에 세부적 쟁점들이 판이한 해석을 낳는 일이 생기게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한 가지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는 흠 스스로 자신의 철학적 목표로 삼고 있으며, 나아가 적어도 그와 같은 목표에 시종 변함없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그것은 바로 흠의 주저인 『인성론』의 제목이 보여주듯이 “인간의 본성에 대한 탐구”이며, 또한 이를 위해 이 저서의 부제이기도 한 “실험적 추론방법을 도덕적 주제들에 도입하려는 시도”라는 자신의 방법론적 원칙에 충실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흠의 인간에 대한 과학적 탐구방법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정신 현상에 대한 경험과 관찰을 통해 발견한 감각인상과 관념에 기초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인상과 관념의 발견에 기초한 귀납적 경험주의는 실험적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인간 본성의 특성상 개연성에 머물기 때문에 현상 설명의 엄밀성을 보여줄 수가 없다.¹⁾ 더욱이 내성적 관찰을 통해서 사실 세계에 대한 지식과 관념들을 그에 대응하는 감각경험 즉 감각인상들에 기초해서 설명하는 발생적 및 환원적 설명방식에는 부주의한 비약과 과도한 일반화가 끼어들기 쉽다. 단적으로 우리는 그 인상의 실재와 정당성을 확인하거나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절차와 방법을 거의 갖고 있지 못하다. 비록 흠 자신은 뉴턴의 탐구 방법론의 원칙에 충실하고자 하는 자연과학적 인간학자로서 경험과 관찰에

1) J. Biro, ‘Hume’s New Science of the Mind’, p. 35.

의한 설명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는 있지만, 이를 시종일관 지키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실제로 흄은 정신의 근본 원리들을 제시할 때면 으레 그 원리들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보다는 그 또한 하나의 경험론적 전제나 가설이라 하여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인상 혹은 원초적 인상에서 자신의 추론을 멈추곤 한다.²⁾ 그러나 관념에 대응하는 인상의 발견이라는 대원칙 역시 그 자체로는 하나의 가설이라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설명되어야 할 원칙의 정당성이 면제되지 않는다.

흄의 이러한 시도가 실제로 불충분하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점은 많다. 흄은 인간 본성의 궁극적인 원리와 성질을 발견했다고 하는 주장들이 경험적 관찰을 뛰어넘는 경우 그것은 억측과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T, xvii),³⁾ 그가 제시하고 있는 많은 관념들에 대응하는 인상들이 그와 같은 원칙을 철저히 따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령, 인과성의 관념을 부정하면서 흄은 그것이 우리가 원인과 결과라고 생각하는 두 대상들 사이의 지속적인 동반을 반복적으로 관찰하는 데서 갖게 되는 일종의 습관적 경향성의 산물에 불과한 것이라고 결론 내리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결정적인 이유도 원인과 결과의 필연적 결합을 확인할 수 있는 인상의 부재라는 사실에서 찾는다. 흄이 제시하고 있는 마음의 자연적 경향성과 원초적 인상 혹은 감각인상, 관념, 이차 인상/반성인상, 복합관념 등 이들 간의 다양한 상호 관계와 결합 모두가

-
- 2) 후설은 윤리학적 탐구에서 감정의 역할에 주목한 흄의 통찰력을 매우 높이 평가했으나, 반면에 감정의 선천성이라는 고유 영역의 존재에 대해서 충분히 주목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비판했다. 이에 대해서는 Husserl, E, *Vorlesungen über Ethik und Wertlehre 1908-1914*, hersg. von Ullrich Melle, *Husserliana* Bd. XXVIII, Dordrecht/ Boston/Lond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88, 편집자 서론. 특히 p. XVIII-XIX.
- 3) 흄의 저서들 중 『인성론』(*A Treatise of Human Nature*)은 Selby-Bigge판을, 인용 표시는 약어 T와 함께 면수를, 그리고 『도덕원리연구』(*An Enquiry concerning the Principles of Morals*)는 J. B. Schneewind 편집본을, 인용문표시는 E와 함께 면수를 각각 본문 중에 직접 표기하였다.

이러한 문제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때문에 이와 같은 흠 철학에서의 ‘인상과 관념의 대응 문제’는 적지 않은 해석의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이 글은 흠의 도덕적 감정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려 한다. 흠의 윤리적 탐구의 주요 목적은 윤리적 자연주의자로서 어떤 도덕 판단을 참혹은 거짓이 되게 하는 조건들, 즉 규범적 관점이 아니라 발생적 관점에서 “도덕적 감정들과 도덕 판단들의 근거들 혹은 기원을 발견하는 것”⁴⁾이다. 그리고 또한 흠은 도덕 판단이란 기본적으로 보편적 관점 즉 “변함없는 일반적 관점들”(T, 581-582)을 허용하는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도덕성의 원리를 발견하려는 시도의 성공은 또한 보편적 관점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작업을 필요로 한다. 흠은 이 과제를 『인성론』에서는 공감의 원리를 통해서 수행했지만, 필자는 공감의 도덕성이 갖는 한계를 해소하지 못했다고 해석한다. 또한 그 대안적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후기 저술들 중의 하나인 『도덕원리연구』에서 시도한 인간애의 원리라고 해석한다. 보편적 감정의 존재를 가감 없이 승인하는 이 저서에서 흠은 ‘원인에 대한 우리의 검토는 어디에선가 멈추어야 한다. 모든 과학에는 그것을 넘어서는 보다 일반적인 원리를 발견하기를 바랄 수 없는 그런 원리들이 존재한다.’(E, 43n19)고 밝히고 있다. 필자는 이런 흠의 고백이 ‘인상과 관념의 대응 문제’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한다. 만일 어떤 연구가 이 지점에 대한 탐구를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그 이상의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면, 그러한 상태에서 내리게 되는 결론은 말 그대로 잠정적 주장이 될 공산이 크다. 인식론, 정념론, 도덕론 등 흠의 철학 모든 부문에서 사정은 같다. 흠의 철학이 난해하게 읽히는 원인들도 이와 관련이 깊다. 이 글은 이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흠의 이른바 ‘관념과 인상의 대응 문제’ 중에서 우리의 마음이 지각하는 공감과 인간애 개념에 주목한다. 특히 흠에게 공감은 인상과 관념에 대

4) J. Noxon, *Hume's Philosophical Development: A Study of his Methods*, p. 23.

한 경험적 해석학에서 초래되는 잉클어진 실타래를 풀어주며, 중국에는 쾌락 및 고통과 함께 도덕의 일반적 토대와 원리들의 존재를 증명해주는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느낌이자 마음의 원리들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반면에 그만큼 여전히 더 해명되고 논구되어야 할 문제로 남아 있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도덕 판단을 보편적 관점의 표명으로 간주하는 흄이 그 가능성을 규명하기 위해서 보여주고 있는 시도는 공감이나 인간애 어느 쪽으로도 성공을 거둘 수 없으며, 이 둘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제3의 요소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도덕적 정념과 도덕적 감정주의

관념들의 인상을 발견하기 위해서 관념의 경험적 기원을 추적하는 흄이 도덕의 토대로 선택한 세계가 마음의 지각 현상으로서 감정 즉 정념이다. 흄이 정념을 선택한 근본 이유는 그것이 내성적 관찰을 통해서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근원적 현상으로서 지각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정념은 기본적으로 이차 인상 또는 반성 인상이다. 이는 곧 인상과 관념의 대응 관계에서 정념은 더 이상의 선행하는 지각이 없이 우리의 마음에서 직접적으로 지각되는 존재인 쾌락이나 고통 혹은 그에 대한 전망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또는 즉각적으로 생겨나는 느낌으로서 인상과 관념의 이중 결합의 산물임을 의미한다. 이렇게 감정 또는 정념의 발생적 현상학으로서 흄의 도덕 감정론은 마음 혹은 의식의 지각 현상에서 발견되는 정념 일반에 대한 탐구 및 그것과 도덕의 관계와 차이에 대한 해명을 통해서 구체화된다.

흄에 의하면, 도덕적 행위의 근원적 요인은 정념이다. 도덕의 근원을 이성에서 두면서 정념이나 감정을 도덕적 판단과 행위를 방해하거나 저해하는 부정적 요인으로 보는 도덕의 이성주의를 비판 혹은 거부하면서

도덕의 토대를 철저히 감정에서 찾는다. “이성은 정념의 노예이다”(T, 415), “도덕적 분별의 원천은 이성이 아니다.”(T, 455), “도덕적 분별은 도덕감에서 유래한다.”(T, 470) 또는 “도덕성은 판단된다기보다는 느껴지는 것이다.”(T, 470)라는 등의 진술은 흠의 도덕적 주장을 상징하는 문구들이다. 이를 통해 일체의 합리주의 도덕론과 대립하고 있듯이 흠은 쾌/불쾌와 같은 인상에 근원을 둔 경험적 종합감정인 도덕감이 도덕적 분별과 선악의 근원이며, 이성은 단독으로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선언하고 있다. 비록 그에 앞서 루소나 샤프츠베리 및 허치슨 같은 도덕 감정론자들이 있었지만, 흠은 당시의 합리주의 도덕론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함께 정념 우위의 도덕론 즉 도덕 감정론을 가장 체계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도덕의 토대 형성에서 이성의 작용과 역할을 이차적인 것 내지는 부차적인 것으로 최소화하려고 했다. 그리고 정념을 전면으로 내세우면서도 이로부터 도덕적 정념을 구별해내고 이에 토대를 둔 도덕의 일반적 원리들의 존재를 밝히려고 했다.

흠의 도덕적 감정주의는 도덕적 정념과 비도덕적 정념을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정념은 쾌/불쾌와 관련된 우리의 정서적 반응들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정념에는 도덕적 정념들도 있고, 비도덕적 정념들도 있다. 흠에 의하면, 좋고 나쁨, 옳고 그름, 해야 한다 또는 해서는 안 된다 등의 도덕 판단을 가능하게 해주는 정념들이 도덕적 정념들이다. 이런 정념들은 승인이나 불승인과 같은 도덕 판단을 일으키는데, 흠은 이런 도덕적 감정을 도덕감(moral sentiment)이라 부른다. 따라서 좋거나 나쁘다는 등 우리의 도덕 판단의 기원이 곧 도덕감이다. 도덕적 정념과 비도덕적 정념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것도 이 도덕감의 존재다. 그런데 흠은 이에 덧붙여 도덕 판단이 도덕 판단일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보편적 관점을 허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어떤 품성이나 행위에 대한 도덕감의 승인/불승인의 감정이 곧 도덕 판단이며, 그것이 한 개인에게만 타당한 판단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타당한 판단이기를 요구하는 것이

도덕 판단(의 감정)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정념에 선악이라는 도덕 관념을 연결시키며, 또 그것을 어느 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두가 동의하는 그런 판단을 허용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의 여부는 흄의 도덕론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흄이 내놓은 답변이 바로 공감(sympathy)의 원리와 인간애의 원리(principle of humanity; universal principle of the human frame)다.⁵⁾

흄의 도덕이론이 처음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은 주지하듯이 그의 처녀작인 ‘인간의 본성에 관한 연구’ 즉 『인성론』(*A Treatise of Human Nature*, 1739-1740)이다. 이 저작은 전 3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739년 1월에 1권과 2권에 해당하는 ‘지성론’(Of the Understanding)과 ‘정념론’(Of the Passions)이 먼저 출간되었고, 이듬해인 1740년 11월에 제3권 ‘도덕론’(Of Morals)이 출간되었다. 그 후에 다시 흄은 『인성론』 각 권을 개조하여 『인간 지성에 관한 연구』(*An Enquir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1748), 『정념에 관한 연구』(*A Dissertation on the Passions*, 1757), 『도덕원리연구』(*An Enquiry concerning the Principles of Morals*, 1751) 등을 별도의 단행본으로 발간하였다. 대체로 이 후기의 저작들은 전작들 보다 훨씬 더 명료하고 간결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흄이 세인들로부터 철학자로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도 바로 후기의 저술들로부터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세 개의 후기 저작들은 『인성론』에서 개진되었던 사상과 그 내용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고 다만 문제를 다루는 방법적인 측면에서만 다르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⁶⁾

5) 감정원리를 구체화하는 흄의 도덕론에서 감정을 나타내는 사용되는 용어들과 관련 있는 단어들은 sentiment, feeling, emotion, sense 등이 있지만, 그 각각의 쓰임이 엄밀하게 구분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이 글에서 대체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분해서 사용하였다. sense는 감각. sentiment는 감정 혹은 정감 때로는 감성, 따라서 moral sentiment, sense of moral, moral sense 등은 모두 도덕감. feeling은 감정/느낌, 따라서 moral feeling은 도덕(적) 감정. emotion은 정서 혹은 감정, 그러므로 moral emotion은 도덕적 정서/감성.

그런데 주목할 것은 후자의 저서 및 그 부록을 보면 형식상 보편적 관점을 포함하는 도덕적 원리와 비도덕적 원리를 아주 분명하게 대비를 시켜 놓고 있다.⁷⁾ 한쪽에는 도덕성의 원리와 같은 도덕감, 인간애, 자비심, 정의가, 다른 한쪽에는 비도덕성의 원리로서 자기애(self-love)의 원리가 대조를 이루는 방식으로 서술되고 있다. 나아가 두 저서에서 이 같은 도덕성의 원리들이 보편적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인성론』의 경우에는 공감이다. 그런데 이 저서에서는 자비심 같은 도덕적 정념은 극히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편적 관점을 허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반면에, 『도덕원리연구』에서는 공감과 나란히 자비심을 포함한 인간애와 같은 감정을 더욱 강조하면서 이것이 그러한 원리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⁸⁾ 『인성론』의 일반적 기조로 미루어 볼 때, 흠은 자비심을 모든 덕의 근원으로 보는 허치슨 같은 영국 도덕론자들과 달리 자비심 보다 공감을 더 근원적이며 근원적인 감정(기제)으로, 더 나아가 공감을 자비심의 원인으로 보며, 그 밖의 자비심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다른 덕들을 낳는 원리로 간주한다.⁹⁾ 반면

-
- 6) 도덕론의 경우 역시 외형적 및 형식적 측면에서는 흠은 『도덕원리연구』의 첫 도입에서도 『인성론』과 별반 다르지 않게 도덕의 일반적 토대와 원리들을 발견하려는 탐구의 목표와 함께 이를 위한 연구 주제들을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1. 도덕은 이성에서 기인하는가, 아니면 감정(sentiment)에서 기인하는가? 2. 도덕적 지식은 일련의 논증과 귀납을 통해서 얻어지는가, 아니면 직접적인 느낌과 특수한 내적 감각을 통해서 얻어지는가? 3. 모든 건전한 참/거짓 판단과 마찬가지로, 도덕은 모든 이성적인 지적 존재자에게 동일한 것이어야 하는가? 혹은 4. 미와 추의 지각처럼, 도덕은 전적으로 인간의 특수한 구조와 조건에 토대를 두고 있는가? 등이 주요 과제임을 밝히고 있다(E, 13-4).
- 7) 네 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는 <부록>의 각각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I. 도덕감에 관하여, II. 자기애에 대하여, III. 정의에 관한 몇 가지 추가적 고찰, IV. 몇 가지 언어적 논쟁들에 대하여.
- 8) J. Noxon, *Hume's Philosophical Development: A Study of his Methods*, p. 189-190.
- 9) Jesse J. Prinz, *The Emotional Construction of Moral*, p. 104.

에 『도덕원리연구』에서는 공감과 인간애 및 자비심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 아마 그 이유는 『인성론』의 논리에 따르면, 자비심의 감정이 공감 혹은 공감의 기제를 통해서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설명해야겠지만, 공감을 인간애와 대등한 원리, 혹은 자비심을 단적으로 선천적인 근원 감정 같은 것으로 상정하며 인간애 중심의 논지를 펼치고 있는 『도덕원리연구』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생각된다. 흄은 이렇게 쓰고 있다.

왜 우리가 인간애(humanity)나 타인에 대한 동료애(fellow-feeling)를 갖는지에 대해서 묻는 데까지 우리의 연구를 밀고 나갈 필요는 없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하나의 원리로 경험된다는 것으로 충분하다. 원인에 대한 우리의 검토는 어디에선가 멈추어야 한다. 모든 과학에는 그것을 넘어서는 보다 일반적인 원리를 발견하기를 바랄 수 없는 그런 원리들이 존재한다. (E, 43n19)

『인성론』의 흄은 도덕성의 기초로서 쾌락 및 고통의 원리와 함께 공감을 인간의 마음이 지니고 있는 연상 작용이 작동하는 기제, 즉 인간의 본성에 내재하고 있는 심리적 기제로서 설정하고, 이를 통해 도덕성의 토대 및 도덕 판단의 보편적 관점을 해명하는 원리로 삼는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저 두 저서 사이에는 셸비-비기처럼(E, xiii) 도덕 체계상의 실질적이면서도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다고 보는 주장과, 스튜어트처럼 도덕이론 상의 어떠한 수정도 없다는 주장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할지도 모른다.¹⁰⁾ 가령, 도덕의 기초에 대한 탐구, 도덕적 분별은 이성이나 감정으로부터 나오며, 이런 감정을 공감이나 인간애라고 보는 등

10) John Stewart, *The Moral and Political Philosophy of David Hume*, Appendix: The Recastings, 337. 이에 대해서는 J. Noxon, *Hume's Philosophical Development: A Study of his Methods*, p. 155 인용 및 참조 이와 함께 N. Capaldi, *Hume's Place in Moral Philosophy*, pp. 195-248.

『인성론』에서의 흠의 관점이 후자의 저서에서도 “똑같이 명료하고 분명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보는 크루제는 흠은 공감과 인간애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¹¹⁾ 그러나 필자는 이 같은 ‘해석의 차이’는 그의 도덕적 감정주의의 근본적인 변경이 아니라 공감을 원리로 해서 보편적 관점을 포함하는 도덕 판단의 본성을 규명하는 일에서 생긴 어려움에 따른 변화에서 기인한다고 해석한다. 이제 우리는 그 점을 살펴봄으로써 이런 입장 변화에 반영되어 있는 흠의 도덕적 감정주의의 한계와 문제들을 분명히 할 것이다.

흠에게 공감(sympathy)은 쾌락/고통 중심의 정념론에서 벗어나서 도덕에 관한 보편적 관점을 허용하는 도덕의 토대로서 인간 본성의 자연적 경향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기제로 이해된다. 다시 말해서 『인성론』에서 공감은 동정심, 자비심, 정의, 성실, 분별력, 용기, 친절, 겸손, 관대함 등등과 같은 하나의 특수한 감정이 아니라 그런 감정에 따르는 즐거움이나 고통 혹은 슬픔을 느끼게 해주는 도덕적 심리 기제이다. 이런 점에서 공감은 도덕감과 함께 도덕적 칭찬이나 비난 또는 도덕적 승인이나 불승인 등과 같은 도덕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기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이런 저런 도덕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공감은 보편적 도덕 판단의 가능 조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흠이 도덕 판단의 특징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도덕의 보편적 관점은 한계를 갖는데, 공감적 반응은 한편으로는 “윤리적 덕들에 대한 우리의 승인은 공감으로부터 즉각적으로, 본능적으로 일어나며,¹²⁾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과 친하거나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강해지며, 모르거나 멀리 떨어진 사람일수록 약하게 작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E. 49). 흠은 자연적 덕으로 정의되는 공감의 이런 가변성과 편파성은 소위

11) V. Kruse, *Hume's Philosophy in his Principal Work, A Treatise of Human Nature and In his Essays*, p. 63.

12) 같은 글, pp. 62-63.

상상력을 통한 ‘공감의 교정’에 의해서 인위적인 공평한 덕을 형성함으로써 극복된다고 주장한다.

흠은 도덕적 심리 기제인 공감의 원리를 그의 방법론적 대원칙에 따라서 인상과 관념이라는 두 원리에 기초해서 해명하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이런 태도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초기 저술인 『인성론』에서는 공감을 인간이 갖고 있는 하나의 자연적인 독립적 능력이라는 것을 연상심리학적 방식으로 해명하고 있는데 반해서, 후기의 저술인 『도덕원리연구』에서는 이와 달리 공감의 도덕성의 구체적 표현이라 할 수 있는 자비심이나 동료애와 같은 정념을 포함한 인간애를 공감과 함께 인간의 선천적인 독립적 능력들로, 즉 흠의 용어로 표현하면, ‘인간 본성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자연적 경향성들’로 규정한다. 만일 『인성론』의 방식을 따른다면, 이들 감정은 도덕적 심리 기제이자 “인간 본성의 가장 강력한 원리”(T, 577)인 공감 작용을 통해서 형성하게 된 후천적인 도덕 감정들로 해석되어야 하며, 또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런 감정을 갖게 되는지가 설명되어야 한다. 흠의 언어로 말한다면, 그런 감정의 발생적 기원이 공감을 통해서 설명되어야 한다. 하지만 흠은 결코 이런 작업을 수행하지 않는다. 오히려 흠은 이들 감정을 더 이상 설명할 수 없거나 설명이 불필요한 근원 현상으로 간주해버린다. 그 결과 『인성론』의 흠은 전반적으로 공감을 모든 덕들의 상위 개념 즉 덕의 감정을 갖게 하는 토대로 상정하고 있는 반면에(T, 481, 499-500),¹³⁾ 『도덕원리연구』에서는 자비심과 같은 인간성 혹은 인간애의 원리들이 가져야 하는 공감과의 상호 관계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며, 그런 감정들은 공감과 대등하게 인간의 본성 안에 내재하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의 도덕적 사실로 간주되고 있다.

이와 같이 『도덕원리연구』의 흠은 공감의 원리를 인간애의 원리와 대

13) 공감과 인류애의 관계 및 덕들과 공감의 관계 등에 대한 흠의 설명들을 참조.

비시키고 있는데, 이는 공감과 인간애(혹은 인간애에서 생기는 근원 감정들 혹은 도덕적 사실들)가 상호 호환 가능한 개념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가령, 흠은 공감의 원리에 대한 언급 없이 자기애의 원리와 대비되는 자비심과 같은 인간애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각 개인에게 다른 감정을 낳는 정념들과 달리 우리의 마음에서 즉각적으로(immediately) 일어나는 도덕적 분별의 감정이 존재하는데,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이와 같은 인간애의 감정은 일반적으로 허영심이나 야망과 같은 강도로 평가될 수는 없지만, 그것은 단독으로 도덕의 체계 또는 비난이나 칭찬의 일반적 체계의 토대일 수 있다. 한 사람의 야망은 다른 한 사람의 야망과 같지 않으며, 동일한 사건이나 대상이 두 사람을 동시에 만족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한 사람의 인간애는 모든 사람의 인간애이며, 동일한 대상이 모든 인간 존재 안에 있는 인간애의 정념을 [동일하게] 움직인다.”(E, 75)¹⁴⁾ 이는 도덕적 토대요 심리적 기제로서 도덕적 감정들의 설명 원리로서 공감의 지위와 역할보다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인간의 도덕성을 지시하고 있다. 반면에 『인성론』의 흠은 자비심과 같은 감정만이 아니라 “공감은 다른 어떤 원리의 동의 없이 홀로 작동할 때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승인의 감정을 낳기에 충분한 힘이 있다.”(T, 618)고 하듯이 정의, 충성, 순결 등과 같이 자비심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덕들에 대해서도 작용하는 도덕성의 일반 원리로 상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에서 우리의 관심은 그 어느 쪽이든 더욱 중요한 것은 흠이 원칙적으로 옹호하는 공감이나 인간애가 과연 도덕성의 토대이자 보편적 도덕 판단의 원리로서 작용하기에 충분한지 여부에 있다. 이하에서 우리는 이 점을 좀 더 추적해 볼 것이다. 이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흠의 공감이론에서 공감이 차지하는 도덕의 토대와 원리로서의 지위를 고려할 때, 어떤 추가적 고려사항들이 그의 도덕론을 더욱 정합적이게 할 수 있는지를 살

14) []는 필자의 것이다.

펴볼 것이다.

3. 도덕감과 공감의 원리

흠은 자신의 윤리학적 탐구의 목표로 설정한 도덕 판단의 기원 혹은 근거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술적 윤리학자로서 인상과 관념의 발생과 결합의 인과적 기원을 추적하는 연상주의 심리학과 같은 방법에 의존한다. 그 결과 흠은 도덕감과 공감에 기초해서 한편으로는 도덕 판단이나 도덕적 평가의 발생을, 다른 한편으로는 덕과 악덕에 대한 도덕 판단이 갖는 보편적 관점의 성립을 설명한다. 공감과 도덕감은 특히 보편적 도덕 판단에 함께 작용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감은 여러 가지 종류의 개인적 감정의 소통과 관계하며, 도덕감은 판단이나 평가와 관계한다고 할 수 있다.¹⁵⁾

도덕감과 함께 작용하면서 공감은 한 개인에게서 작동하는 도덕감의 한계를 확장하거나 도덕적 무감각을 일깨우는 도덕적 기제로서 작동한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도덕감이 보편적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공감 기능이 하는 도덕적 심리 기제 덕분이다. 하지만 공감 역시 편파성의 한계를 갖는데, 자신과의 친소관계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강도가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런 한계를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상상력의 반성 작용을 통한 공감의 교정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공감의 교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상상력에 의한 반성이 공감의 교정에서 하는 역할이 정확히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하는 흠의 설명은 상당히 애매하거나 빈약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도덕론’의 대미를 장식하는 결론부에서 흠은 인간 본성론에서 공감이 차지하는 중요한 지위와 역할을 강조하는 것으로 연구를 마무리

15) R. Hardin, *David Hume : Moral and Political Theorist*, p. 36.

하는데, 여기서 공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 요약하고 있다: 공감은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매우 강력한 원리다. 공감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행복이나 불행에 함께 즐거워하거나 괴로워하게 만드는 작용을 한다. 그리고 도덕 판단을 할 때 다른 원리의 도움 없이도 가장 강력한 승인의 감정을 낳기에 충분한 힘이 있으며, 이러한 작용은 정의, 충성, 순결 등 대부분의 덕에서 발견된다. 정의에 대한 우리의 승인도 그것이 공공선의 경향을 갖기 때문인데, 공감이 이러한 공공선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이끌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신의 선만이 아니라 낯선 사람의 행복이 존중되는 것도 오직 이 공감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며, 또한 자신을 넘어 사회나 덕의 소유자에게서도 도덕적 가치를 이끌어내는 것도 공감을 통해서이다. 이렇게 공감은 도덕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도덕감과 공감은 도덕적 분별의 가장 강력한 원리이지만, 도덕감이 한 개인이 갖는 도덕적 시인의 발생과 원천으로서 쾌락과 고통에 반응하는 인간 정신의 근원적 직감인 반면, 공감은 그 이상으로 개인을 뛰어 넘어 덕과 덕의 감각 등 정의나 다른 덕들에까지 확장되는 보편적인 승인과 불승인의 감정이다.(T, 618-9)

이처럼 흠은 인간의 근원적 직감으로서 도덕감만을 인정하는 당시의 영국의 도덕감 학파의 확설을 거부하면서 오히려 공감을 통해서 도덕감을 해명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도덕적 심리기제로서 공감 중심의 도덕 감정론을 전개하고 있는 흠은 한 개인의 도덕 판단에서 도덕감과 공감을 모두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도덕감의 도덕 판단에는 언제나 공감이 작용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흠이 공감을 더욱 강조하는 이면에는 인간의 도덕적 행위와 평가에 광범위하게 미치고 있는 도덕 판단의 보편성에 대한 그의 관심이 놓여 있다. 도덕감 학파처럼 도덕감만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그와 같은 보편적인 도덕적 감정을 가질 수 있는지 제대로 해명할 수 없게 된다.(T, 619)

그러면 그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도덕감과 구분되는 공감은 어떻게 이

런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인가? 흄에게 도덕적 진리는 도덕감에 의해서 발견되며, 또 이 도덕감 또는 인상에 의해서 도덕적 분별이 이루어지는데,¹⁶⁾ 공감은 연민이나 동정심 같은 도덕적 정념들처럼 그 자체는 하나의 특정한 감정이 아니다.¹⁷⁾ 오히려 흄의 설명을 쫓아가 보면, 우리가 최초로 어떤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정념의 결과를 지각하게 되면, 그 결과로부터 그 원인으로 진행해서 내 안에서 그 정념에 해당하는 매우 생생한 관념을 형성하게 되고, 이로부터 그 관념은 곧 내가 느끼는 정념 자체로 전환된다. 이렇게 해서 나는 그가 느끼는 정념과 유사한 정념을 느끼게 된다.(T, 576) 이처럼 타인이 느끼는 정념으로부터 출발해서 일종의 반성 관념에서 반성 인상으로의 전환을 통해 어떤 정념/감정을 공유하게 해주는 인간 본성의 심리적 기제가 공감이다. 이렇게 해서 공감의 원리는 타인에 대한 도덕 판단에서 있을 수 있는 편협함과 편파성을 뛰어넘어서며, 심지어는 타인에 대한 공정한 칭찬이나 비난도 가능하게 해준다.(T, 579)

흄에 의하면, 공감의 원리에 작용하는 가변성과 편파성은 심지어 가치에 대한 일반적 평가가 불변해도 발생한다. 그만큼 공감은 가치 평가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언제나 일관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공감을 통해서 수용된 도덕 판단도 그 상대의 친소나 원근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감은 변화 유무에 상관없이 제 홀로 변하기도 한다. 이런 연유에서 흄은 단호하게 불변하는 도덕적 기준과 평가의 형성은 공감이 그 토대를 제공하지만, 그렇다

16) J. Harrison, *Hume's Moral Epistemology*, p. 4, 99.

17) 흄은 때로는 연민이나 동정심 같은 감정을 공감과 동일시하기도 한다. 이는 흄이 아직 공감이론을 체계적으로 전개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공감(sympathy)에 감정이입(empathy)의 경우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흄의 이러한 표현은 공감과 자비심의 관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고 공감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T, 580-1) 이렇게 공감은 도덕 판단의 보편성의 가능 조건이지만 무조건적으로 타당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일정한 도덕적 성질에 대한 보편적 승인의 가능 근거도 공감이기 때문에 공감의 가변성과 편파성을 벗어나서 도덕 판단이 지닌 보편적 관점으로서의 이행을 위해서는 도덕감 혹은 공감의 교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이 때 ‘교정’(correcting)의 주체와 대상은 공감이 아닌 다른 무엇이어야 한다.(T, 582 이하) 말하자면, 언제나 비난과 칭찬의 등의 일반 원리와 다른 원리들의 대립, 이익과 이익의 대립이 존재할 것이므로 그러한 교정의 주체는 공감 자신이 될 수 없다. 흠은 이러한 교정의 주체를 “반성”(reflection)으로 묘사한다.(T, 582-3) 하지만 이와 함께 흠은 또 다른 문제를 끌어들이게 된다. 한편으로는 도덕감은 주관적인 성격을 갖는 반면에 보편적 도덕 판단의 대상이 되는 덕은 객관적 성격을 갖는다.¹⁸⁾ 따라서 흠이 보여주고자 하는 공감의 보편적 관점은 동시에 주관적인 도덕 판단과 객관적인 도덕 판단의 일치 가능성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공감의 교정을 가능하게 하는 반성 혹은 반성 작용에 대한 흠의 설명을 살펴보면, 이에를 기본적으로 ‘깨닫고’ ‘비교하고’ ‘떠올리고’ ‘생각하고’ 등과 같은 일련의 사유 기능이 작동된다. 물론 이를 통해 자신의 도덕감과 다른 사람의 도덕감의 대립과 같은 상황에서 공감은 일련의 입장 바꾸어 생각하기와 같은 심리적 반응 기제를 작동시켜서 보편적 관점을 형성케 하며, 또 그에 따른 도덕 판단이 가능하게 되겠지만, 이러한 과정을 수행하는 반성 자체는 감정으로서의 공감은 아니다. 그것이 감정을 지닌 기계 장치처럼 자동적으로 수행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 주체는 공감과 구분되는 반성적 상상력 혹은 상상력을 통한 반성 작용이다.

18) Philippa Foot, ‘Hume on Moral Judgement’, pp. 76-77.

4. 도덕 판단과 공감의 교정

『인성론』에서 흠이 보여준 ‘공감의 원리’에 기초한 보편적 도덕 판단의 가능성에 대한 해명은 불충분하다. 그리고 필자는 『도덕원리연구』에서 보여주고 있는 ‘인간에의 원리’ 중심의 증명은 그러한 문제에 대한 흠 자신이 마련한 대안적 및 보충적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흠이 강조하는 도덕 판단의 보편적 관점이란 언제나 변하지 않는 도덕법칙의 존재와 같은 것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니다. 도덕 판단의 기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공감은 감정의 소통을 통해 “불변적 일반 기준을 형성하게 된다.”(T, 603) 따라서 이런 의미의 보편적 관점은 시대와 여건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비록 그것이 영구불변 할 수는 없다 해도 도덕 판단을 할 때 최소한 그것이 보편적 판단이라는 관점을 요구하며, 이것이 도덕 판단의 특징이라는 것이다. 이런 흠의 태도는 공감의 교정 가능성 문제와 관련해서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는 인간애와 같은 선천적 보편 감정의 문제를 고려하면 좀 더 분명해진다.

흠이 말하는 감정으로서의 공감은 실제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러셀은 흠의 도덕철학에서 공감의 본성과 역할이 갖는 중요한 특징으로 세 가지를 들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우리는 그 점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첫째, 공감의 원리 없이는 도덕감은 우리 안에서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공감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성품이 그 자신 안에서 혹은 다른 사람 안에서 일으키는 쾌락 혹은 고통을 우리 자신 안에서 느껴야만 한다. 둘째, 공감의 전제 조건은 다른 사람들의 정념이나 감정을 그들이 드러내는 외적 표시로부터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내적 경험에 대한 이와 같은 추론 없이는 우리는 우리 자신 이외에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을 공유하거나 공감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공감 없이는 우리의 도덕적 관심

은 우리 자신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¹⁹⁾ 하지만 이에 대한 일반적 동의가 가능하더라도 보편적 관점의 허용 가능성으로서 공감의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다. 하나의 운동 경기를 놓고서도 판단 주체의 지위나 관계나 혹은 처지나 상황에 따라서 서로 다른 공감을 느끼는 일이 가능한 것처럼 보편적 관점의 허용이 이에 불가능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존재한다.²⁰⁾

반면에 일단 인간애가 갖는 보편 감정에는 교정해야 할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흠에게 반성 기능을 갖는 상상력은 넓은 의미에서 이성과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흠이 가리키는 이성은 제 홀로 도덕적 분별의 원천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실이나 관계의 문제들을 판단하는 기능에 한정되므로, 또한 비록 이성은 어떤 행위의 결정에 있어서 그것이 갖는 유해하거나 유용한 경향에 대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알려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도덕적 비난이나 승인을 낳지 못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심을 낳는 감정의 작용이 필수조건인데, 인간의 선천적 보편 감정인 인간애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E, 83) 이 같은 흠의 입장은 인간애나 자비심의 원리를 자기애의 원리와 대비시킬 때 더욱 두드러진다. 이에 의하면, 자기애의 원리는 일체의 덕이나 도덕감과 전혀 양립할 수 없다. 자기애는 가장 비도덕적 성향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탈선을 더욱 조장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모든 자비심을 위선으로 만들어버리며, 친애는 사기이며, 공공심은 연극이며, 성실성은 신용과 신뢰를 얻으려는 미끼에 불과하게 되고, 또 우리 모두는 실제로 자신의 사적인 이익만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경계심을 없애고 자신의 계략과 술책으로 그들에게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적절한 위장을 하는 것이 되고 만

19) P. Russell, *Freedom and Moral Sentiment: Hume's way of naturalizing responsibility*, p. 69n11.

20) J. Harrison, *Hume's Moral Epistemology*, p. 108 참조.

다.(E, 88-93) 이 같은 흠의 진술은 매우 사실적이고 직설적이다.

흠은 도덕성의 원리로서 인간애 혹은 자비심을 공감과 나란히 병치시키기도 하는데(E, 43), 이들 특정한 감정들이 공감과 동일하게 인간 본성에 뿌리를 두고 있는 선천적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흠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자비심은 자연적으로 두 가지 종류, 즉 일반적 자비심과 특수한 자비심으로 분류된다. 전자는 당사자에 대해서 어떤 친애나 친분이나 존경심도 없음에도 단지 그 사람에게 일반적 공감을 느끼거나 혹은 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동정심 같은 것을 느끼는 경우다. 후자의 자비심은 덕에 대한 여론, 즉 우리에게 행해진 봉사나 어떤 특수한 친분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이 두 감정은 인간의 본성 안에 실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러나 그것들이 자기애에 대한 훌륭한 고찰을 통해 해결될 지 여부는 중요한 문제라기보다는 어려운 문제다. 전자의 감정, 즉 일반적 자비심, 혹은 인간애, 혹은 공감의 감정을 앞으로 자주 다룰 기회를 갖게 될 것인데, 나는 이것을 어떤 다른 증명도 없이 일반적인 경험으로부터 실재하는 것이라고 가정한다.” (E, 90n60)

이에 따르면, 일반적 자비심 같은 것은 그 자체가 이미 공감의 표현이다. 즉, 공감의 심리 기제가 작동해서 형성되는 도덕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자비심 자체가 공감의 원리의 표현 혹은 “공감의 감정”이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의 자연적 경향성에 뿌리를 두고 있으므로 일반적 자비심처럼 선천적이라 할 수 있는 인간애의 감정들은 흠이 증명하고자 한 도덕 판단의 보편적 관점을 증명하는데 공감 보다 훨씬 유리한 지위를 갖게 해준다. 즉, 도덕감의 제한성과 공감의 편파성의 문제를 피하면서 도덕 판단의 보편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준다. 필자는 공감의 원리 중심의 『인성론』에서 벗어나 『도덕원리연구』에서 인간애의 원리를 끌어들이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가령, 흠은 『인성론』에서는

조난당한 사람을 구할 경우처럼 인간 본성이 갖는 자연적 인간애를 말하면서 이것이 자아중심성(selfishness)으로부터 확장되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잘못 사용될 수 있는 경우도 적시하면서 자연적 덕들이 갖는 개연성을 강조하는 정도에서 그치고 있다.(T, 579-80) 이런 태도는 제한적 자비심만을 인정하는 『인성론』의 일반적 기초라 할 수 있다. 반면에 『도덕원리연구』에서는 인간애와 자비심 같은 덕들은 직접적인 경향이나 본능에 의해 즉각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그것은 감정을 움직이는 단순 대상들과 주로 관계하는 것으로서 정의의 덕처럼 어떤 제도나 체계, 동의나 모방, 다른 사람들의 사례로부터 야기되는 결과들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언급된다. 자식을 구하려고 몸을 던지는 부모의 행동은 그 자체가 인간애의 표현이라 할 자연적 공감에 의해서 움직이며, 친구를 돕는 관대한 사람 등등. 이런 행위는 모두 결과에 대한 반성 없이도 도덕적 승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덕들은 정의와 성실의 사회적 덕들과 동일하지 않지만 자비심과 정의와 성실의 덕과 같은 사회적 유용성에 대한 관심의 결합은 인류의 복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며, 이에 대한 보편적 도덕 판단을 허용한다. 이러한 결합으로 각각의 개별적인 단일 행위의 결과들을 넘어서 사회 전체 혹은 사회의 더 큰 영역에 의해서 동의를 이루어진 전체 제도나 체계도 가능하게 된다. 흠은 이러한 자비심의 사회적 덕과 그 세목들로부터 생기는 인류의 행복과 번영이 손으로 돌을 하나씩 쌓아 올린 벽으로, 그리고 정의의 사회적 덕과 그 세목들로부터 생기는 동일한 행복은 돌 하나하나가 서로 부조하고 그에 상응하는 부분들의 조합을 이루어 건물 전체가 지탱되고 있는 둥근 아치형 건물로 비유한다.(E, 94) 결국 자비심의 보편성, 그리고 이를 통한 사회적 유용성에 대한 관심과의 결합은 모두 도덕 판단의 보편적 관점이 가능함을 증명해준다.

이렇게 자비심은 『도덕원리연구』에서 ‘인간적이다’ 혹은 ‘인도적이다’(being humane)는 의미의 인간성 혹은 인간애(humanity)의 또 다른 말

로 사용되고 있다.²¹⁾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인간애와 자비심, 그리고 공감 모두가 동일한 외연을 갖는 개념이 아니다. 인간애나 자비심은 각각 하나의 감정이면서 동시에 덕이지만, 공감은 『인성론』에서는 감정 혹은 느낌이면서도 그 자체로는 덕이 아니다. 또한 자비심은 인간애의 감정들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이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가능한 문제들에 대해서 흄은 분명한 답을 해주지 않는다. 하지만 『도덕원리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흄의 설명을 미루어 보건대 인간애나 자비심과 같은 덕들에는 더 이상의 설명을 허용하지 않는 인간의 근원 감정으로서 공감이 함께 작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공감과 인간애는 동일한 것을 달리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문제의 시비를 떠나서 이 보편적 감정을 통해서 도덕 판단의 보편적 관점이 성립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더 수월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는 도덕 판단의 보편적 관점에서 ‘공감의 교정’이 필요했듯이, 보편적 관점의 승인과 관련하여 인간애나 자비심과 같은 보편 감정 역시 공감의 경우와 동일한 문제에 봉착한다. 흄에 의하면, 도덕감과 공감은 모두가 도덕적 분별의 주요 원천으로서 인간 본성의 구조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리고 흄에게 도덕 판단은 느끼는 것, 즉 감정 판단이다. 그런데 교정된 공감 역시 오류 가능성이 있듯이 인간애나 자비심, 혹은 정의와 같은 덕들도 그것이 행사될 때에는 적절한 대상에 대해서 적절히 발휘되었는지 여부를 교정된 공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어떤 보편적 기준에 문의해 보아야 한다. 그것이 공적 내지는 사회적 유용성을 갖는 제도이든 사회의 지배적인 관습이든 이런 보편적 기준에 따르려 하는 것이 흄이 말하는 도덕 판단의 보편적 관점인데, 자비심이 언제나 그러한 행위를 낳는다는 것을 보장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저 감정의 보편성일 뿐 그 자체만으로 판단의 보편성을 낳을 수는 없어 보인다. 즉, 감정의 보편성만으로는 그러

21) J. H., Sobel, *Walls and Vaults: a natural science of morals, virtue ethics according to David Hume*, pp. 348-348.

한 보편적인 도덕 판단은 유지될 수 없다. 감정의 보편성이 감정을 느끼는 주체의 편파성 및 제한성과 대부분 대립하거나 충돌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다시 또 반성 판단이 개입해서 객관적 판단이 될 수 있는 교정의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한 규범이 존재하는 사회에 있는 사람은 이미 그와 같은 규범에 제약을 받겠지만 원론적으로는 교정된 공감 혹은 인간애의 주체는 교정되기 이전의 느낌과 다른 도덕적 느낌을 가져야 할 것이며, 그리고 이에 따라 행동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전의 감정과 교정된 감정 양자 사이에 다시 도덕적 갈등이 존재할 수 있다. 내가 어떤 느낌을 받아들이거나 또 받아들여야만 하는지에 대한 제3의 판단과 결정이 개입해야 하며,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러한 판단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저 둘 중에 보다 강한 느낌 혹은 승인의 감정을 일으키는 것이 판단을 유지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애초에 이 문제가 제기된 지점, 즉 공감의 교정이 요구되었던 지점이 바로 여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공감의 교정을 수행하는 주체는 ‘반성하고’ ‘떠올리고’ ‘상상하고’ ‘생각하는’ 행위자다. 그러면 어떻게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도덕감과 공감 혹은 인간애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파성을 극복하고 보편적 관점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해명되어야 한다. 하지만 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감정과 믿음, 판단과 반성 사이에는 힘이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 말하자면 넓은 의미에서 공감의 도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공감 및 인간애 중심의 감정 판단 혹은 감정 도덕은 일반적 의미에서 도덕 판단의 보편적 관점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도덕 판단에는 도덕적 의지와 같은 제3의 요소가 존재해야 한다.

힘에게 도덕 판단은 개별 판단과 보편 판단, 두 종류로 구분된다. 이들 모두 감정 판단이며, 판단의 대상인 행위와 성격에서 느끼게 되는 성질 혹은 덕이 주는 쾌락은 다른 쾌락과 구분된다. 이는 곧 도덕적 정념

과 비도덕적 정념이 구분되는 기준이다. 공감은 이러한 개별 판단이 기본적으로 보편적 관점의 판단이 되게 하는 도덕적 토대의 역할을 한다. 그런데 도덕 판단이 보편적 관점을 유지하려면 그러한 판단은 개별적 감정/도덕 판단이어서는 안 된다. 개별적 도덕 판단은 흄의 주장처럼 “일정한 느낌 없이는 있을 수 없는” 판단이며, “내가 실제로 느끼는 것이 도덕 판단을 결정한다.”²²⁾ 그러나 교정된 공감 혹은 자비심의 적절한 발휘와 같은 도덕 판단은 반성 판단으로 형식상 보편 판단이다. 비록 도덕적 분별과 행위가 그 시작 단계와 실행 단계에서는 최종적으로 개별적 도덕 판단 즉 도덕감의 발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 개별 판단은 교정된 도덕 판단 즉 보편적 관점을 표현하는 보편 판단에 근거해서 행해져야 한다. 그리고 교정된 보편 판단이 그와 같은 보편적 관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감정 판단인 개별 판단과 보편 판단, 이 두 요소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여기에는 도덕적 의지와 같은 제3의 요소가 필요하다.

5. 보편적 도덕 판단과 도덕적 의지

구성적 감정주의(constructive sentimentalism)를 주장하는 흄주의자 프린츠는 감정과 도덕 판단이 관계 맺는 방식을 “인과 모델”(causal model)과 “구조 모델”(constitution model) 두 가지로 구분한다.²³⁾ 인과 모델은 도덕 판단은 감정적 결과를 갖는다고 하는 주장이다. 이는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견해로서 음악, 스포츠 경기, 화사한 날씨 등이 모두 감정을 유발하지만, 그것들이 감정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은 아니듯이 인과 모델은 도덕 판단은 감정에 선행해서 발생하며, 따라서 감정으로부터 독

22) 최희봉, 『흄의 철학』, p. 145.

23) Jesse J. Prinz, *The Emotional Construction of Moral*, p. 22.

립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구조 모델은 옳고 그름과 같은 개념들은 말의 의미 그대로 감정을 구성 요소로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감정의 인지적 역할을 강조하는 인식적 감정주의자들이 옹호하는 견해라 할 수 있다. 심지어 인식적 감정주의는 여러 가지 인지 실험 결과를 토대로 도덕 판단과 감정이 동시에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싶어 하는데, 이런 입장에 따르면 도덕 판단은 감정적 반응들에 의해서 구성된다. 하지만 프린츠는 도덕 판단과 감정의 관계를 규정하는 이들 두 모델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증거들을 고려할 때 어느 쪽이 타당한 주장인지 결정할 수 없다며 판단을 유보한다. 특히 구조 모델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증거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흥주의자를 자처하는 프린츠 자신은 기본적으로 도덕 판단은 감정에 의해서 수반되며, 따라서 감정이 도덕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도덕 판단을 위해서는 공감이 필수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반흥적이다.²⁴⁾ 필자는 인과 모델 보다는 구조 모델을 선호하는 이러한 프린츠의 견해를 위의 두 모델과 구분해서 잠정적으로 “구성 모델”(constructive model)이라 부를 것이다. 프린츠가 구조 모델을 더 선호하는 이유는 인과 모델은 감정과 도덕 판단을 분리될 수 있는 두 개의 개별적 요소라는 것을 함축하는 견해로서 이는 감정과 도덕 판단의 동시 발생을 설명할 수 없으며, 또 도덕 판단을 위해서는 이에 적합한 능력의 발달이 요구되기 때문이다.²⁵⁾ 반면에 프린츠의 구성 모델 혹은 구성적 감정주의는 “감정은 도덕 판단의 구성 요소로서 옳고 그름과 같은 개념의 개별 사례들을 구성한다.”²⁶⁾ 이러한 감정에 의해서 도덕은 창

24) Jesse J. Prinz, ‘Is Empathy Necessary for Morality?’, in A. Coplan and P. Goldie, *Empathy: Philosophical and Psychological Perspectives*,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25) Jesse J. Prinz, *The Emotional Construction of Moral*, p. 99.

26) 같은 글, p. 99.

조되며(create), 따라서 도덕 체계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창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²⁷⁾ 흄의 도덕 철학의 기본 원칙은 고수하되 그것이 지닌 약점과 한계를 넘어서고, 또 그 연장선상에서 방법론적 자연주의와 도덕 계보학을 원용하면서 흄과 니체의 결합을 도모하고 있는 프린츠의 시도는 그 적절성을 따지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흄은 특정한 쾌와 불쾌를 일으키는 덕과 악덕 같은 도덕적 속성을 “대상이 지닌 성질이 아니라 마음의 지각”(T, 469)이며, 옳고 그름은 행위 보다는 성품에 대한 감정적 반응에 의해서 결정되며(T, 470-2), 그리고 이런 쾌락과 고통의 반응을 위해서는 공감(혹은 동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그것으로 인해 도덕적 정념과 비도덕적 정념의 구분 및 보편적인 도덕적 승인과 불승인의 도덕 판단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저 세 가지 모델 중에서 그 어느 쪽이든 흄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지가 않다. 이들 견해는 모두 흄의 감정적 도덕 판단과 이로부터 생겨나는 보편적 관점의 문제를 간과하고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흄의 기본 정신과 원칙에 충실할 경우, 우리는 흄에게서 도덕 판단에 대한 새로운 이해 방식이 필요하며, 그에 따라서 흄의 도덕이론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흄은 도덕 판단의 성립에서 발생적 관점을 일관되게 유지했으며, 나아가 실질적으로 도덕 판단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강조했다. 다시 말해서 흄이 주목한 것은 최종적으로 도덕 판단은 감정적 반응이며, 따라서 도덕성은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적 구조와 기분에 뿌리를 두고 있는(T, 474) 느끼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도덕적 분별의 주요 원천 즉 도덕의 근본 토대로서 공감(혹은 인간애)이 보편적 관점의 토대가 된다고 보았을 흄이 주목한 것은 말 그대로 도덕성의 기초와 기원이다. 그런데 흄에게 행위 주체가 하는 판단은 언제나 개별적 도덕 판단이며, 동시에 어떤 도덕적 기준이 사회 제도나 도덕 규칙들의 체계를 통해서

27) 같은 글, p. 9.

만들어졌거나 유통되는지와 상관없이 최후의 판단 주체는 언제나 느끼는 개인의 도덕성으로 귀결된다. 다시 말해서 흠이 공감의 교정과 관련해서 반성 작용을 강조했을 때, 이것만을 독립적으로 고려한다면, 교정 즉 반성 결과의 수용 주체는 개인이며, 그 개인이 하는 최종적인 도덕 판단은 개별적 도덕 판단이므로 여전히 도덕 판단은 이성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하는 일이라는 흠의 견해는 유지된다. 하지만 이런 과정 속에서 보편적 관점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게 된다.

흠에게 도덕 판단의 시작과 끝은 감정 판단이다. 이성과 믿음은 단독으로 행동으로 이끌 수 없다는 흠의 논증이 참인 한,²⁸⁾ 행위자의 도덕 판단은 개별적인 감정 판단이다. 그러나 비록 이런 감정 판단을 할 때마다 실제로 매번 우리는 언제나 보편적 관점에서 하고 있다는 해석이 설득력이 있다 하더라도,²⁹⁾ 이 경우에도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보편적 도덕 판단을 유지시키는 것은 감정이 될 수 없다. 흠은 이렇게 쓰고 있다. ‘이성은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도덕적 선/악의 구별에서 **‘단독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T, 462) “사유와 지성이 **‘단독으로’** 옳고 그름의 경계를 확정지을 수 없다”(T, 463).³⁰⁾ 여기서 이러한 진술은 모두 도덕의 기원 혹은 유래 즉 발생적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흠의 단호한 도덕적 관점에서 “단독으로”(alone)라는 제한과 강조가 특히 두드러지며, 이런 특징은 저서 전체를 통틀어서 일반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기조이다. 그런데 이런 이성의 기능이 적극적으로 수행되는 경우가 바로 공감의 교정 과정이다. 비난과 같은 도덕감이 반성 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정, 즉 공감의 교정에서 이를 수행하는 주체는 반성이다. 흠은 이런 의미의 반성을 이성 혹은 흠의 용어로는 상상력이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한다.(T, 586)

28) J. Harrison, *Hume's Moral Epistemology*, p. 5-10.

29) R. Cohon, ‘The Common Point of View in Hume’s Ethics’, pp.839-845.

30) 강조 표시는 필자.

반성과 상상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감의 교정, 그리고 이를 통해 도덕 판단의 일반적 관점을 갖게 됨으로써 설사 흄의 반성 개념이 이성주의자들이 말하는 논증적 추론을 하는 능력이 아니라 꾸준히 형성된 습관을 바탕으로 갖게 된 느낌에 대한 2차적 반추 능력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또한 그것이 흄이 말하는 ‘제한적 관대함’의 극복이나 정의의 원칙에의 동의, 자연적 덕과 인위적 덕 사이에 존재하는 간격을 메울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³¹⁾ 그것으로 필자가 말한 도덕적 기준으로서 역할을 해야 할 일반적 도덕 판단의 존재와 그 유지 가능성을 증명해 주지는 못한다. 또한 흄이 행위자와 구별되는 관찰자의 구분을 도입하여(T, 408-9) 행위자 관점과 관망자 관점을 구분하더라도,³²⁾ 그것이 이상적 관망자의 관점인 한 실질적인 교정이 아니라 단순한 형식적 교정에 그치고 마는 기술적 해결책에 지나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그 같은 대안은 실질적인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데, 행위의 동기력을 갖지 못함으로써 언제나 개별적 도덕 판단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흄이 공감에 부여했던 보편적 관점은 단순히 관점에서 관점으로의 이행이 아니라 도덕감이 하는 개별 판단의 실천적 구속력과 같은 것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보편적 관점은 공감의 교정을 낳는데 원칙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 흄은 개별적 도덕 판단을 일반적 도덕 판단과 엄격히 구분하고, 전자처럼 후자의 경우에도 실천적 구속력을 갖는 판단이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의도하는 도덕 판단의 보편적 관점을 포기하거나,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필자는 그 가능성을 도덕적 의지에서 발견한다. 그러나 흄에게 의지는 반성 인상이자 이차적 욕구로서 독립적으로 능동적인 힘을 행사할 수 없으며, 따라

31) 양선이, 「흄의 도덕 감정론에 나타난 반성개념의 역할과 도덕 감정의 합리성 문제」, p. 55-87.

32) Aryeh Botwinick, *Ethics, Politics and A Study in the Unity of Hume's Thought*, p. 32-33.

서 우리의 정념을 통제 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흠의 이론 체계 내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보편적 관점의 유지와 실질적 구속력을 갖는 도덕적 의지의 존재를 승인하거나,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 같다.

참고문헌

- 데이비드 흄, 『도덕에 관하여』, 이준호 옮김, 서광사, 1998.
- 맹주만, 「도덕적 감정 - 후설의 칸트 비판」, 『칸트연구』 제7집, 한국칸트학회, 2001.
- 서양근대철학회 엮음, 『서양근대윤리학』, 창비, 2010.
- 양선이, 「흄의 도덕 감정론에 나타난 반성개념의 역할과 도덕 감정의 합리성 문제」, 『철학』 제119집, 한국철학회, 2014.
- 최희봉, 『흄의 철학』, 자작아카데미, 1996.
- Biro, J., 'Hume's New Science of the Mind', in David Norton (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Hum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 Botwinick, Aryeh, *Ethics, Politics and A Study in the Unity of Hume's Thought*,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80.
- Capaldi, N., *Hume's Place in Moral Philosophy*, New York, 1989,
- Cohon, R., 'The Common Point of View in Hume's Ethics',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57, 1997.
- Foot, Philippa, 'Hume on Moral Judgement', in David Pears (ed.), *David Hume: A Symposium*, London: St Martin's Press, 1963.
- Hardin, R., *David Hume : Moral and Political Theorist*,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 Harrison, J., *Hume's Moral Epistemology*, Oxford: Clarendon Press, 1976.
- Hume, D., *A Treatise of Human Nature*, edited by L.A. Selby-Big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0.
- _____, *An Enquiry concerning the Principles of Morals*, edited by J.B. Schneewind, Indianapolis: Hackett Publishing Company, 1983.
- Husserl, E., *Vorlesungen über Ethik und Wertlehre 1908-1914*, hersg. von

- Ullrich Melle, *Husserliana* Bd. XXVIII, Dordrecht/ Boston/Lond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88.
- Korsgaard, Christine M., 'The General Point of View: Love and Moral Approval in Hume's Ethics', *Hume Studies* 25, 1999.
- Kruse, V., *Hume's Philosophy in his Principal Work, A Treatise of Human Nature and In his Essays*. Oxford University Press, 1939.
- Noxon, J., *Hume's Philosophical Development: A Study of his Methods*, Oxford University Press, 1973.
- Prinz, Jesse J., *The Emotional Construction of Moral*,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 _____, 'Is Empathy Necessary for Morality?', in Coplan A. and Goldie P. ed., *Empathy: Philosophical and Psychological Perspectives*,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 Russell, P., *Freedom and Moral Sentiment: Hume's way of naturalizing responsibility*,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 Sobel, J. H., *Walls and Vaults: a natural science of morals, virtue ethics according to David Hume*, New Jersey: John Wiley & Sons, Inc., 2009.

Hume and the Morality of Sympathy

Maeng, Jooman (Chung-Ang Univ.)

I will scrutinize Hume's moral emotionism in this paper. His main goal as an ethical naturalist is to discover reasons and origin of moral judgments in genetic viewpoint as not in normative one. At the same time, Hume thinks that moral judgments basically admit of universal viewpoint. Therefore it implies to have to show the universal viewpoint being valid in order to succeed in his ethical inquiry finding out principle of morality. Although Hume carried out this task through principle of sympathy in the *A Treatise of Human Nature*, and also in *An Enquiry concerning the Principles of Morals* centered in humanity including benevolence, fellow-feelings as well. I claim that he didn't dissolve their having problems and limit.

In some place of the latter recognized without making any adjustments what the universal feelings are, Hume said that "we must stop somewhere in our examination of causes; and there are, in every science, some general principles, beyond which we cannot hope to find any principle more general." I infer from such a confession out of him that it is part of correspondence problems of impressions and ideas. And in line with these problems I think that Hume failed to show what moral judgments express an universal viewpoint in both of the *A Treatise of Human Nature* and *An Enquiry concerning the Principles of Morals* in this paper. Finally I would argue that universal moral judgments require the third element besides sympathy and humanity.

흥과 공감의 도덕성 / 맹주만

Key words: sympathy, humanity, benevolence, compassion, impression,
passion, moral sentiment, reflection, reason, imagination

맹주만 e-mail: maengjm@cau.ac.kr

투 고 일	2014년 10월 14일
심 사 일	2014년 11월 05일
게재확정	2014년 11월 14일